

## 대성당 종교 예식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30 아침 기도  
11:00 수도사 미사  
12:00 미사 (주제단)  
13:00 살베 이 비롤라이 (성모 마리아 찬양가)  
18:15 묵주기도  
18:45 저녁기도

### 고백성사

10:40~11:40 / 12:00~13:00

### 토요일

07:30 아침 기도  
11:00 수도사 미사  
12:00 미사 (주제단)  
13:00 살베 이 비롤라이 (소년성가대 없음)  
18:15 묵주기도  
18:45 저녁기도  
19:30 미사

### 고백성사

10:00~11:40 / 12:00~13:00 / 19:30~20:00

### 일요일과 공휴일

07:30 아침 기도  
09:30 미사  
11:00 수도사 미사  
12:00 살베 이 비롤라이  
13:00 미사  
18:15 묵주 기도  
18:45 저녁 기도  
19:30 미사

### 고백성사

09:15~11:40 / 12:00 ~13:00  
17:00~ 18:00 / 19:30~20:00

### 전야 행사

4월 11일 22:00 - 부활절  
4월 26일 21:00 - 성모 마리아  
5월 30일 21:30 - 오순절 (미사 없음)  
8월 14일 21:30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없음)  
9월 7일 21:30 -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 (미사 없음)  
12월 24일 22:30 - 성탄절  
12월 31일 22:30 - 평화 지향

### 몬세랏 성지

#### 성직자 조정 위원회

08199 Montserrat (Barcelona)  
Tel. +34 93 877 77 66  
ccpastoral@santuari-montserrat.com  
www.abadiamontserrat.net

# 2020



여러분은 몬세랏산에 계십니다.  
이 수도원과 성모 마리아 성지에  
거주하는 수도사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안고  
자 하는 마음을 담은 포옹을 대신  
해 기도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 행복하십니다, 성모 마리아



**행**복, 시편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시편의 주된 메시지이자 수자들의 기도, 즉 몬세라트의 기도의 주석입니다. 행복은 또한 예수께서 그를 따르고자 한 이들에게 하신 설교인 여덟가지 참행복 각각의 항목에 선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행적을 따랐던 모든 행복들 가운데, 그리고 행복한 날을 찾아왔던, 찾았던, 그리고 찾아갈 사람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행복은 성모 마리아께서 사촌 엘리자벳을 통해 들었던 진정한 참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축복을 온전히 다 지켜내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기에 행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비록 그것들이 그녀를 굶힐 수는 없었지만, 고난과 역경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행복은, 믿음으로서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흠어질 수 있도록 그녀가 걸었던 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이며, 그녀의 삶을 밝혔던 행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분명 힘든 순간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진실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닦친 상황이 즐겁던 아니던 상관 없이 양식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데에서 얻는 행복; 가장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행복 말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행복 중,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온전히 겪으신 행복 중 우리는 몬세라트 순례를 인도하실 말씀을 시편에서 세 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1-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론 구속의 공로를 예견하시고 원죄로부터 마리아를 구하기를 원하셨으며, 항상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침례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선물을 수여받지는 않으며,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유사성을 모호하게 하는 죄인 실수와 오류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왔으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주실 것입니다.

2-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시편 134, 9):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믿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그것을 온 몸으로 경험했고, 가장 어두운 순간을 포함한 모든 순간, 하나님 안으로 피난하셨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찾아야 할 것인데, 그 분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참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3-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는 이* (시편 41, 2):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엘리자벳을 돕기 위해 한 발 나아갔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 계었던 마리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말씀을 알게 하고자 하실 때 믿었고, 받들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행복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단지 그 행복 안에서, 모든 행복의 원천인 높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는 여정일 뿐입니다.